

報 道 參 考 資 料

題目：財經部長官, 『Y2K 問題解決을 위한 國際세미나』午餐 演說

주요 내용

□ 李揆成 財政經濟部長官은 '99.3.16 "Y2K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 세미나(한국전력, 한국통신, 한국증권업협회, 한국일보 주최)"에서

○ 정부, 금융기관 및 주요 기간산업과 민간기업의 Y2K문제 책임자와 주요 외국대사관 관계자들을 모시고

○ 『한국의 금융, 도전과 응전』이란 제목하에 기조연설을 하였음

□ 이 자리에서 財政經濟部長官은

○ IMF 위기극복과정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

○ 한국경제의 제도약을 위한 금융부문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피력하는 한편,

○ Y2K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금융부문의 과제와 노력을 적극 당부하였음

붙임：『韓國의 金融, 挑戰과 應戰』

자료생산처：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(전화：503-9241)

재정경제부 공보담당관실(전화：503-9020)

Y2K문제 해결을 위한
국제세미나 기조연설

韓國의 金融, 挑戰과 應戰

1999. 3. 16 (火)

財政經濟部長官 李 揆 成

I. 인사 말씀

☐ 친애하는 내빈 여러분!

☐ 우선 본인이

범국가적으로 추진중인 2000년 문제(일명 Y2K) 해결을 위한 국제세미나의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.

☐ 우리는 지금 “國難”이라 할 수 있는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과거의 비능률과 비효율에서 탈피하기 위한 경제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○ 사실 지난 한 해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서 하루를 25시간, 1주일을 8일과 같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.

☐ 이제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났으며, 금년 한 해에는 위기의 수습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.

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, IMF위기 극복과정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금융부문의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

II. IMF 克服過程의 敎訓

□ 돌이켜 보면,

- 우리 경제는 일단 외환위기라는 긴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났습니다만,
- 이 시점에서 IMF사태로 표현되는 경제위기로부터 얻은 교훈을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.

□ 우선 우리는 총체적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했습니다.

- 사회 각 분야에서 Generalist로 일컬어지는 비전문가 위주의 인적구성으로 어느 한 분야에 통달한 전문가를 키우지 못하여 위기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.

□ 둘째는 위기극복과정에서는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.

-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국민적 합의로 승화될 때만이 힘을 결집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신뢰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.

□ 셋째, 위기를 가져온 원인중의 하나는 사회 각계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

- 이를 근본적으로 퇴치하지 않으면 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

III. 韓國經濟의 再跳躍을 위한 金融部門의 發展方向

1. 構造改革의 基本方向

- ☐ 정부는 위와 같은 교훈을 바탕으로
지난 1년간 경제 각 부분의 부실을 털어내는
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.
- ☐ 그러나, 구조조정은 아직도 시작단계에 불과합니다.
 - 지금까지의 작업이 구조개혁의 기본틀(Hardware)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면
 - 이제부터는 부실을 털어낸 새로운 금융기관의 틀 속에 내실을 채워 넣는 소프트웨어의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.
 - 소프트웨어의 개혁이란
금융기관·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들의
의식과 관행을 국제수준(Global Standard)에
맞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.

2. 金融構造改革의 成功的 마무리

- ☐ 이러한 인식하에
정부는 금년에도 은행구조조정에 이어
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대주주 책임하에 강도
높게 추진할 계획입니다.

- ☐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재무장이 필요하고 사회 각 부문의 갈등해소 등 정치적 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.

3. 金融監督의 強化를 통한 金融시스템의 安定性 확보

- ☐ 현재의 금융위기는 철저하지 못한 감독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.
 - 정부는 효과적이면서도 강력한 금융감독을 위하여 이미 지난 4월1일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99년부터는 통합 감독원을 가동하는 등 금융감독의 하부구조를 정비해 왔습니다.
- ☐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위기를 조속히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
 -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자산건전성 기준을 단계적으로 국제수준에 맞게 강화해 나가고
 - 적기시정조치 및 경영평가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.
- ☐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는 한편, 꼭 필요한 규제의 경우에도 그 내용을 경제주체들이 알기 쉽게 투명화함으로써 시장의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.

4. 先進經營技法의 導入을 통한 金融産業의 內實化

☐ 그간 우리의 금융기관은

자금의 초과수요가 상존하는 상황에서
업무영역과 가격규제의 보호하에 안이한 경영을
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.

☐ 그러나, 이제 과거와 같은 경영방식은 더 이상 허용될
수 없다는 것은

○ 은행의 퇴출등을 경험하면서 누구나 인식하게
되었습니다.

☐ 금융의 통합화(Universalization),
세계화(Globalization) 및
증권화(Securitization) 등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

○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
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.

☐ 우선 금융기관은 資産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

○ 거래기업의 재무상태와 사업전망 및 미래수익을
전망할 수 있는 심사능력을 갖추어야 하고,

○ 여신심사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의 투명성을
확보해야 하며

○ 여신의 사후 모니터링 기능을 크게 강화해야 합니다.

○ 이를 위해 관련 人力의 능력 향상과
의사결정기구의 선진화는
그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□ 이와 함께 외국은행과의 업무제휴나 합병등을 통하여
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도
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.

5. 責任經營體制의 確立

□ 금융기관이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
방만한 운영으로
부실의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.

□ 정부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여
금융기관 경영을 상업성·수익성 위주로 전환하고

○ 대주주에 대한 여신규제는 강화해 나가면서
은행의 소유구조를 개선하는 한편,

○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 강화, 부실에 대한 철저한
책임분담 등을 통해 경영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
체제와 풍토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.

6. 資本市場 活性化를 통한 원활한 資金調達

□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시장이 중소기업과 개인들의 자금 조달처라면

- 자본시장은 능력있는 기업이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곳으로서 그 발전정도가 경제와 금융산업 발전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.

□ 이를 위해 정부는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높이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.

- 기업공개와 상장을 분리하여 상장요건을 완화하고
- 기업연금제도와 종업원지주제도를 개선하여 수요기반을 확충하며,
- 뮤추얼 펀드를 기관투자자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.
-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의 육성을 통해 중소·벤처기업의 직접자금 조달을 지원하고
-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채의 지표채권으로서의 역할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.

III. 外換去來 自由化의 推進

- 최근 IMF체제하에서 우리경제의 거시경제 운용 방식이 시장중심으로 개편되었고
외환위기의 극복도 상당부분 이루어졌으며
기업·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등 각종 System이 선진화되고 있습니다.
- 이와 함께 외환거래 제도도 국제 정합성에 맞는 체제로 개편함으로써 금융기관과 기업의 원활한 대외영업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특히,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21세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구축에 대비하고 경제제도약의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운용 패러다임의 설정이 요구되고 있으며
- 새로운 패러다임은 각 부문의 규제개혁과 시장 개방을 통한 대내외 경쟁체제의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외환자유화는 21C를 목전에 두고 범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「선택이 아닌 필수」로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□ 이에 따라 금번 4.1일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조치를
시행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

- 기업의 단기 외화차입을 허용하고,
- 선물환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을 폐지하는 동시에,
-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
하는 것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
□ 다만 금번의 외환자유화는 과거와는 달리 각종
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중히 추진하고 있습니다.

- 먼저,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건전성 강화를
통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
- 외환전산망 구축과 국제금융센타 설립을 통한
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
- 환율·금리 등 거시경제변수가 경제의 실세를
반영하도록 적절히 조합하는 세련된 Policy Mix를
운영함과 동시에
-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최대한
확충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돌발사태 발생시 외환
유출에 대비하여 Back-up facility를 마련하고
있음을 말씀드립니다.

IV. 새로운 危機로의 Y2K 問題

- ☐ 이러한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 속에서
Y2K 문제는
우리 금융산업에 대한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자
기회입니다.
- ☐ Y2K문제는 2000년이 도래하기 전에
해결해야 하기 때문에
 - 금년이 문제해결을 위한 마지막 시간입니다.
- ☐ 금년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
 - 경제의 혈맥인 금융시스템을 비롯한
국가경제 전반의 정보체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
수도 있습니다.
- ☐ 금융부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
은행·증권·보험 등 금융기관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고
 - 지난 97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인 준비를 해오고
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,
 - 단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
시스템을 점검하고 장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
倍前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.

- 정부와 감독당국은
개별 금융기관이 Y2K문제로 인한 장애의
발생을 방지해 나갈 수 있도록
- 금융기관 경영층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,
금융기관의 대응태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
비상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
측면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.

V. 맺음말

- 우리는 지금
 - 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겪으면서
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
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.
- 오늘의 경제위기가 금융부문에서 촉발되었듯이
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단초도
금융부문이 제공할 것입니다.
- 우리가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
금융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
 - 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경제의 재도약을
이루기 위해서는

○ 강력하고 안정된 금융시스템의 마련이
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입니다.

○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
금융부문이 과감히 개혁되어야 하고,
이를 위하여 정부와 각 경제주체들의 노력이
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.

□ 정부는 우리 금융산업이
21세기의 전략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
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

○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
지원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